



생활과학대학 동문회보

Fall 2018
Alumni Newsletter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동문회

College of Human Ecology Alumni Association
Yonsei University

SYDNEY DUTY FREE KOREA

호주직구닷컴



호주직구닷컴(주)은 시드니에 위치한 호주정부
공식면세점을 본사로 두고있는, 호주직구 쇼핑몰입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광화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호주 제품을
편하고 저렴하게 직접 경험, 선택해보세요.

호주직구닷컴(주) 대표 문현주(식80)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320호
02-568-9220

www.sdfkorea.com

www.호주직구.com

목차

회장인사	2
학장인사	3
생활과학대학 소식	4
학과별 동문 소식	6
동문회 활동보고	10
재상봉 후기	18
장학생 감사 서신	37
동문의 글	42
재무 보고	48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동문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삼성관) 529호

발행인 | 이진경 편집위원장 | 유희인 편집·디자인 | 김희영, 김민재, 이하은 2018년 10월 발행

남다른 유대와 단합된 모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진경

아동79 | 생활과학대학 동문회 회장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동문회를 맡게 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여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고 여러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순조롭게 임원진을 구성하여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도 특별한 생활과학대학의 동문은 남다른 애교심을 갖고 있는 선후배님들로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새로운 동문회 활동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우선 감사한 마음을 이 지면을 빌어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기의 이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남다른 유대와 단합된 모습으로 이루어 놓으신 성과는 저로서는 감히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 2년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후배의 만남을 이렇게 진지하게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험은 물론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면서 우리 연세대 특히 생활과학대학의 동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에 놀라고 너무나도 우리 대학을 사랑하고 아끼는 선배님들, 이러한 선배님들을 따라 열심히 우리 대학을 위해 헌신하는 동기들과 후배들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능력은 없지만 선후배님들의 힘을 빌어 우리 연세대 생활과학대학 동문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맡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배들의 육성에 정성을 다하시는 하미경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도와주시는 석원석 차장님과 송미란 팀장님을 비롯한 행정실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여름 무사히 지내셨기를 바라며, 어김없이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가온 가을날, 우리들의 축제인 동문의 밤 행사에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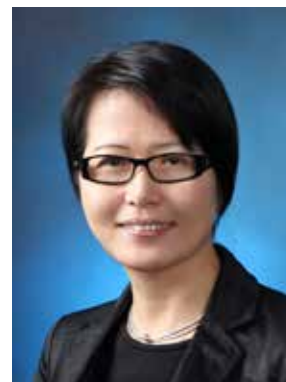
2018년 09월

생활과학대학 동문회장 이진경

배려하고 공감하며 삶의 가치 향상을 도모합니다

하미경

주생77 | 생활과학대학 학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름도 정말 무덥고 습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더위에 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더위 속에서도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며,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보았습니다. 이제 곧 찾아올 선선한 바람과 파란 가을하늘을 기대합니다.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은 그 역사가 이미 50년을 넘었고 ‘인간의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Neo- Entrepreneurship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학과 모든 전공영역에서 이에 걸맞은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21학년도까지 국내 38개 대학이 폐교될 전망이라는 교육 당국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측인지는 모르지만, 대학운영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기술은 고도화되고 많은 것들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대화는 사라지며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통 기술의 활용으로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기적처럼 해결되기도 합니다. 기술이 더 좋은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고 공익을 가져다 주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생활과학의 존재성과 학문적 가치는 이런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 현시대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 시대에 경쟁력 있고 꼭 필요한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교를 사랑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의 이진경 회장님과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동문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사회적 편견의 벽을 깨고 각 전문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이 우리 대학의 자랑이고 후배들의 모범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면서 후배양성과 지원을 위해 동문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성을 모아 후배장학금, 발전기금을 마련해주신 총동문회, 미주동문회, 발전후원회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문들의 희망과 기대를 기억하고, 경쟁력 있는 그러나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면 늘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참된 일꾼들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연세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동문 여러분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연세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우리 대학교의 김용학 총장님이 강조하시는 따뜻한 배려와 공감능력을 계속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께 하느님의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08월

생활과학대학 학장 하 미 경

생활과학대학 소식

2017년 9월~2018년 8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련회

2018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국제캠퍼스에서 2018 학년도 입학생 122명(의류환경학과 26명, 식품영양학과 22명, 실내건축학과 27명, 아동가족학과 25명, 생활디자인학과 22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8년 2월 26일 오전 10시 학위수여식이 삼성관 최이순홀에서 거행되었으며, 127명(의류환경학과 27명, 식품영양학과 24명, 실내건축학과 31명, 아동·가족학과 19명, 생활디자인학과 26명)이 학사학위를 받았다.



재상봉 행사

2018년 5월 12일 창립 132주년 기념행사일에 생활과학대학 재상봉 행사가 오전 10시에 최이순홀에서 개최되었다. 약 80명의 재상봉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동문대표 전주혜(식생87) 동문이 주축이 되어 모금한 생활과학대학 발전기금 일천만 원을 대학에 기부하였다.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8년 8월 31일 오전 11시 학위수여식이 대강당에서 거행되었으며, 71명(의류환경학과 12명, 식품영양학과 15명, 실내건축학과 14명, 아동·가족학과 9명, 생활디자인학과 21명)이 학사학위를 받았다.

미주동문회장학금

미주동문회장학금은 2014년 생활과학대학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미주동문회(전화수 회장, 식생69)에서 조성하였다. 생활과학대학 장학위원회가 정한 장학생 자격요건은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생활과학 관련 전공으로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있으며 생활과학대학 설립 이념과 비전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생활과학대학 장학위원회는 2018년도 장학생으로 이종화(의류환경,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석사과정입학), 황신우(식품영양, Cornell University, 박사과정입학), 변수연(Johns Hopkins University, 박사과정입학) 동문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 전 임원단 발전기금 전달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 전임 임원단은 임기를 마감하면서 2년 동안 동문회 제작 상품 판매와 바자회 수

익, 동문회보 광고협찬 등으로 해마다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후배사랑장학금 4천만 원 외에 추가로 마련된 7천만 원을 2018년 2월에 생과대 발전기금으로 대학에 전달하였다.



학과별 동문 소식

의류환경학과

***김호(64입) 동문**이 모교 발전을 위해 5억 원의 기금을 쾌척하였다. 김 동문은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와 의생화학과의 1기 졸업생이다. 2017년 10월 12일 발전기금 전달식을 위해 모교를 방문한 김 동문은 “내가 학교에 입학한 1964년도에는 여학생 수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고 말했다.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학교를 향한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가 시급한 이 상황에 이렇게 큰 기부를 결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연세 발전을 위해 귀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 동문은 “늘 연세대학교와 생활과학대학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주어져 기쁘고 행복하다.” 고 화답했다.



*** 조영호(88입) 동문**은 (주)티에프제이글로벌의 기업 부설연구소장, CTO로 근무하고 있다. 친환경 섬유 제품 초발수가공기술”을 보유한 이 기업은 최근 36세이하 유아가 입에 넣고 빨아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STANDARD 100 by OEKO TEX, CLASS I 인증을 받았고, 동시에 ANNEX XVII of REACH, CPSIA, CHINESE GB18401:2010 인증을 획득하였다. (주)티에프제이글로벌은 최근 일본, EU 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탄소소재

융합연구센터와 산학연계하여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중이다.

미래섬유로 각광받고 개발되었던 탄소섬유, 전도성섬유의 상용화가 더디거나 실패했던 원인은 당초 개발된 섬유가 대기의 온도 차이, 수분, 수증기 등에 노출되었을 때, 결로현상, 쇼트 현상, 소재의 젖음성 등으로 인해 심각한 오류 및 불능 사유가 되었기 때문인데, 이 기업의 BLUELOGY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LUELOGY와 탄소섬유, 전도성섬유의 기술융합은 침체의 늪으로 치달던 국내 섬유 및 4차산업 기술업체의 활로를 열어 혁신성장을 단기간에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미영(89입) 동문**은 2018년 3월에 유한대학교 i-패션디자인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주 동문은 이랜드 디자이너와 미국 뉴욕의 여성편집샵 BARAMI 디자이너, 뉴욕 Daron Fashion Group의 여성복 아우터웨어 디자이너 등을 거쳤으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패션스쿨에서 초빙교수로 4년 재직 후 올해 유한대학교로 이직하였다.

유한대학교는 패션산업 전반에 접목된 IT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기술들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패션 인재 양성에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

***진병호(84입) 동문**은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에 Albert Myers Distinguished Professor가 되었다.

***백은수(05입) 동문**은 HongKong Polytech.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김인환(10입) 동문**은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Fiber and Polymer Science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VF Corp. 연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연간 \$54,780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식품영양학과

*** 김혜영(76입·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동문**은 2018년 6월 26일 (알렌관)과 7월 13일 (삼성관)에 <2018 Symposium on Bioactive Nutrition>을 주제로 국제 석학 심포지엄 I, II를 개최하였다.

*** 박태선(79입·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동문**은 2017년 11월 주식회사 '보타닉센스(Botanic-sens)'를 설립하고 TSPARK Lab의 향기 성분 기술을 실제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보타닉센스(Botanic-sens)'라는 이름은 식물(botanic)의 향기 성분을 피부가 감지(sense)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권성희(90입) 동문**은 머니투데이 금융부 국장 대우로 승진하였다.

이번 여행 중에는 젊은 건축가 그룹 SOA가 설계한 <생각이섬>에 머물며 교래 휴양림, 비자림 숲을 걷고 중선 갤러리에서는 프랑스 작가 클로드 비알라(Claude Viallat, 1936~)의 작품을 감상하였다.



*** 김성재(79입) 동문**은 아이에스트레이딩 대표로 취임하였다. 아이에스트레이딩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길 24(전화: 02-569-7900)에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업종 기업으로 의류·패션·잡화·뷰티 및 건강식품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실내건축학과

*** 주생활과 69학번**은 졸업 30주년에는 제천, 35주년에는 양양, 40주년에는 라오스로 기념여행을 다녀왔는데 45주년인 올해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 13명의 동문이 제주도에 다녀왔다.



*** 최윤정(85입) 동문**은 한국생활과학회 차기회장이기도 한 최 동문은 2018년 6월 27일 한국생활과학회지에 게재된 해외현지조사에 의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의 그린캠퍼스 추진내용 분석 논문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아동가족학과

* **조성연(79입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동문은 2018년 9월 8일 경남대학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개최된 한국생애학회정기총회에서 한국생애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문희영(78입·남가주 동문회 소속)** 동문이 생활과 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였다. 2018년 5월 17일 김용학 총장, 민동준 행정대외부총장, 전해정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한 기부금 전달식에서 문 동문은 “39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과 현재 90세이신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또한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문 동문의 모친인 김재희 여사와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인 이석범 여사도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 **전혜정(85입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동문은 2018년 2월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장으로 취임하였다.

* **신운승(88입)** 동문은 2018년 2월에 “팀티칭 영아반에서 경력교사의 지원이 초임교사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로 아동가족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생활디자인학과

* **허정원(96입)** 동문은 아모레퍼시픽 디자인센터장/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 Head of Design Center)으로 승진하였다.

* **원충열(97입)** 동문은 브랜드메이저, 네이버 등의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브랜딩이라는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맥락을 팔아라 -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시대의 마케팅(미래의창, 2017)>을 출간하였다.



* **정현일(99입)** 동문은 현재 뉴욕에서 가구/제품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 제품화되지는 않았으나 허공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스피커(Aloft Speaker)가 디자인붐(www.designboom.com)에 소개되었다.



또한 YD(Yanko Design, www.yankodesign.com)에 그의 또 다른 작품이 조명되기도 하였다.



* **정진서(99입)** 동문은 GDA(German Design Award)2019의 Corporate Identity 부문 Special Mention에 선정되었다.

* **한예은(99입)** 동문이 성수동에 다시 'SHANA 8th avenue' 쇼룸점 공방(www.shana8thavenue.com/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2길 17-1 B1F)을 오픈하였다.

내년 봄부터 클러치와 미니백, 신발, 스카프 등 액세서리 토탈 브랜드 런칭을 준비중이며 신규 브랜드로 이번 9월말에 열리는 파리 트라노이 전시에 참여한다. 또한 10월 16일~24일까지 강남 임페리얼 호텔(갤러리 포월)에서 향기작가 한서형과 콜라보한 개인 전시 '향낭'을 진행한다.

***김소연(00입)** 동문은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학사,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석사,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를 거쳐, 2017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이훈(03입)** 동문은 싱가포르에 있는 Kimberly-Clark APAC Headquarter로 부서 이동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 Business School에서 학업을 병행 중이다.

* **정승진(04입)** 동문은 영국 런던의 Brune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Design and Physical Sciences에서 MSc Digital Service Design 전공 중이며 올해 졸업 예정이다.

* **민예슬(04입)** 동문은 광고 기획 및 제작 회사인 이노션(www.innocean.com)에서 넥스트캠페인팀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 **김희진(06입)** 동문의 브랜드 키미제이는 18FW 런던 패션위크 쇼룸을 진행하였고 18FW 서울컬렉션 후 미국 뉴욕 VFILES 입점하였다. 또한 블랙핑크 일본 WWD 재팬 9월호 표지, 방탄소년단 콘서트 의상을 협찬하였다. 19SS '기환' 컬렉션을 3D 숏필름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번 10월 18일에는 19SS 서울컬렉션에 참가할 예정이다.

* **최운진(07입)** 동문은 2018년 8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하였으며, 데이터 맞춤 서비스 회사인 주식회사 몬데이터(www.mondata.net)를 창업하였다.

* **김혜령(10입)** 동문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각자의 리듬으로 산다: 나를 지키기 위한 적당한 거리 두기 연습·관계 맺기에 서툰 당신을 위한 그림 에세이 (시공사 2018)>를 출간하였다.



* **서화정(11입)**은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18년 롯데쇼핑 e커머스 UX기획 부서에 입사하였다.

동문회 활동보고

2017 가을 후배사랑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2017년 10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양누리 헬리눅스 홀과 광정환 홀에서 개최되었다. 후배사랑 장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본 바자회에는 생과대동문회에서 자체 개발한 여러 상품이 판매되었다. 그 외에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밍크·폭스 머플러, 스카프류, 패션 돋보기류, 핸드백, 백팩, 지갑류, 여행용 파우치와 기증받은 의류들, 스포츠용품 및 운동화류, 매년 적극 후원에 참여하는 우태하 피부과 및 바디샵의 화장품류와 중고물품을 판매하였으며 젓갈류, 장류 등을 동문회에서 직접 판매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외부업체에서 일정금액의 참가비를 내고 지속적으로 바자회에 참석하고 있다. 각 판매대에는 40여 명의 동문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등 동문과 지인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후배들에게 전달할 2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무난히 마련할 수 있었다.

2017 가을 생활과학대학 동문의 밤



이어 저녁 6시부터 그랜드볼룸에서는 동문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만찬과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만찬은 2백여 좌석을 가득 채운 동문들의 열기와 조영호(의생 87) 동문의 위트 넘치는 진행으로 더욱 흥겨웠다. 하미경 생활과학대학장, 고애란 전 생활과학대학장을 비롯하여 이금실(의생 72) 생활과학대학 발전후원회 회장 및 지영림 여자동창회장, 유병률 사무총장, 김정현 사무국장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영경 회장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동문들의 아낌없는 도움 덕분에 생활과학대학 동문회는 내실을 다지고 왕성한 활동으로 단합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후배들을 위해 마련한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가수 동물원 김창기 동문(의학 82)의 <혜화동>, <넌 사랑하겠어>, <엄마가 딸에게> 공연과 하리(HARIE)의 락킹댄스에 큰 호응을 보였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한 우리 동문들은 공연에 응답하면서 하나가 되는 연세인의 기쁨을 함께 누렸고 임원진의 수고와 여러 동문 및 교수의 기증으로 마련된 많은 경품으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가을 동문회 행사가 되었다.



바자회와 동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남은 바자 물품 중 기증받은 물품을 선별하여 천주교 청소년 복지단체 및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였으며, 2017년 12월 5일 동문행사에 수고한 동문들을 위한 자축모임이 광화문 <관쭈이>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바자회와 동문의 밤 행사에서 수고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며 느꼈던 감상을 나누고 내년 행사를 준비하는 의지를 다지며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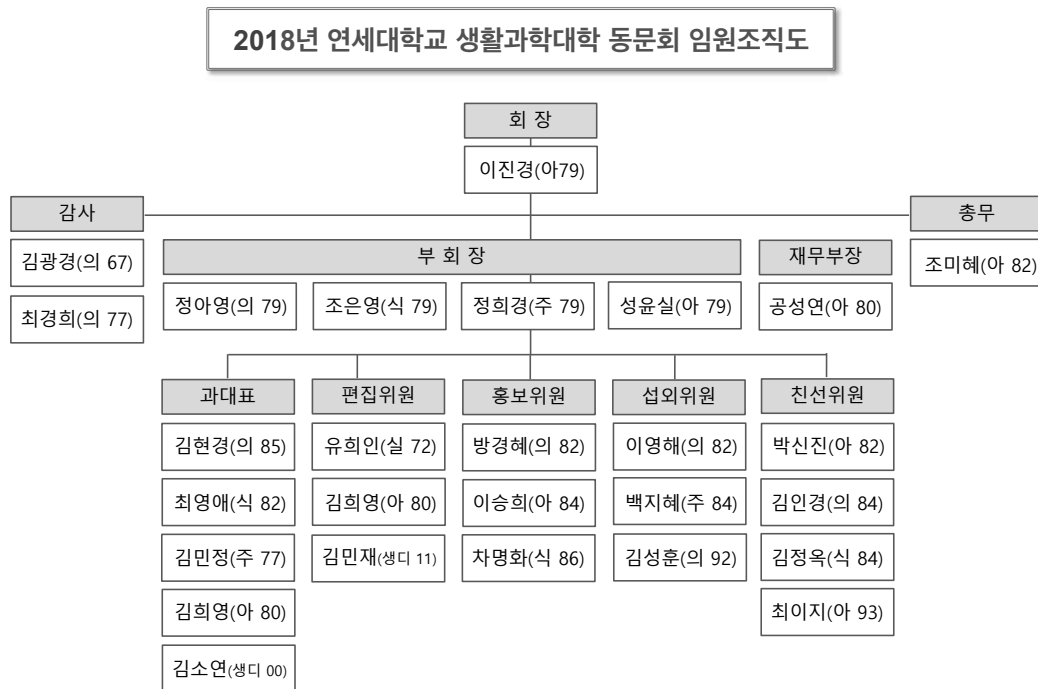


2017 평가회



2018년도 임원진

2018년 동문회는 이진경(아동79) 회장, 정아영(의류79), 정희경(주생79), 조은영(식생79), 성윤실(아동79) 부회장, 공성연(아동80) 재무부장, 조미혜(아동82) 총무로 구성되었다. 해외체류 및 개인사정으로 활동이 어려워진 몇몇 동문 외에 2017년도에 활동했던 임원 대부분은 잔류하였다.



2018년 졸업 50 & 25 주년 재상봉 기대표 초대모임

2월 24일에는 동문회관 내 <티원>에서 5월 50 &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앞둔 64학번과 89학번 기대표 초대모임이 있었다. 생활과학대학 하미경 학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 동문회 임원진과 64학번과 89학번 기대표가 함께 하여 재상봉 준비에 필요한 노하우를 기대표에게 전달하고 성공적인 재상봉 행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생활과학대학 64학번 졸업 50주년 및 89학번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64학번의 졸업 50주년 및 89학번의 졸업 25주년을 기념하는 재상봉 행사가 삼성관 최이순홀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졸업 25주년 재상봉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생과대에서 50주년 재상봉 기념행사를 하는 뜻깊은 해였다. 이날의 행사는 하미경 학장과 이진경 동문회장의 인사말을 시작





으로 64학번의 동문의 인사말, 생활과학대학 발전기금 1600만 원 전달식, 64학번 동문 소개 및 89학번 동문의 인사말, 생활과학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식, 89학번 동문 소개, 동문회 기념품 증정식, 케이크 커팅 및 다과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50주년 재상봉 행사를 하는 64학번은 미국에 살고 있는 동문도 참여한 가운데 많은 동문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5년 재상봉을 기념하여 행사에 참여한 89학번 각 학과도 해외에서 온 여러 동문과 함께 졸업 후 처음으로 교수진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마치 대학 시절 학생과 같은 기쁨을 느꼈다.

● 50주년 재상봉 행사에 함께 참여한 동문

| 의생활과 64 (5명)

김문자, 김미희, 김 호, 이상선, 이정나

| 식생활과 64 (19명)

김경미(말년), 김경순, 김병구, 김연희, 김영희, 김혜원, *김혜자
*남우봉, 노숙녀, 박정남, 신재순, 안송자, 안수진, 양순자
윤현숙, 윤희자, 이문혜, 이승자, 이영자,

| 주생활과 64 (13명)

김신자, 김월녀, *김은자, *김추자, 나정남, 노송희, *소동숙
손지영, 이경혜, 이현자, 조영희, 최미라, *최충애

*생과대 발전기금엔 참여했으나 재상봉 행사당일 참석하지 못한 동문

● 생활과학대학 평생동창회비 납부자 명단 (89학번 재상봉)

| 의류환경 89 (23명)

강지혜, 강혜정, 권미연, 김경선, 김성혜, 김수경, 김희연, 문난영
박순지, 박연주, 박정희, 서동애, 성희원, 신승은, 오경애, 오선아
이재연, 정연선, 주미영, 진선행, 최윤희, 한소원, 현상민

| 식품영양 89 (16명)

김선정, 김소진, 김정혜, 김현수, 김희경, 박나모, 박은주, 박지아
서정연, 소영현, 이동선, 이영선, 이주원, 이호선, 조은영, 차정희

| 실내건축 89 (20명)

곽희정, 김두나, 김소영, 김주원, 김희경, 모정현, 문소라, 박지민
박지연, 박지원, 박혜선, 유은숙, 유혜정, 이광윤, 임현경, 전원경
정혜승, 최성희, 최은규, 허지은

| 아동가족 89 (21명)

권현수, 김영화, 김은영, 김현주, 서문옥, 신나리, 양성은, 오종은
윤여림, 이미경, 이선영, 이은영, 이정숙, 이희정, 정안나, 채난희
최선아 외 4인

동문회 평생회비를 납부한 동문에게는
생활과학대학 동문 근조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8 연세대학교 여동문의 날 행사 참가

5월 26일 토요일 여동문의 날 행사 중 하나로 10시 30분부터 총장공관 영빈관에서 '논지당 추억지키기 바자회'가 열렸다. 이어 4시 30분부터는 총장공관 뜰에서 '2018 연세대학교 여동문의 날' 본 행사가 개최되었다. 생과대 임원진들은 '관심으로 꽃 피우다, 함께 하면 특별해지는 일상'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바비큐파티를 즐기면서 오랜만에 만난 여러 동문과 그 시절 우리들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날 우리 대학에서는 김병구(식생64) 동문 외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경품행사에서 모피 및 해외여행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선물이 당첨되었다.



2018 이화여고 바자회 참가

5월 30일 수요일 '이화여고 바자'에 생활과학대학 동문회도 한 부스로 참여하여 동문회의 자체 개발 상품인 지갑류, 파우치 세트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 수익금은 '후배사랑 장학기금'으로 기증되었다.

2017년 9월 ~ 2018년 8월 근조기 전달 내용

2017.09.08	문현주 시부상(식80)	(일산병원)
2017.09.26	문영애 모친상(의74)	(이대목동병원)
2017.10.05	고윤경 시부상(식81)	(전주전북대병원)
2017.10.15	이연옥 시부상(실68)	(아산병원)
2017.10.26	김영심 모친상(아82)	(신내동서울의료원)
2017.11.08	정숙원 부친상(실79)	(서울성모병원)
2017.12.07	정승아 부친상(식88)	(서울성모병원)
2017.12.25	최윤정 시부상(아82)	(신촌세브란스)
2018.01.13	유선영 부친상(실80)	(신촌세브란스)
2018.02.02	이혜선 모친상(의75)	(공주장례식장)
2018.02.25	정인애 모친상(의80)	(아산병원)
2018.03.05	김미양 부친상(아88)	(부산의료원)
2018.03.10	김민정 모친상(의86)	(아산병원)
2018.03.24	강혜원 모친상(의80)	(분당서울대병원)
2018.03.26	류현정 모친상(의83)	(광주그린장례식장)
2018.03.31	이선희 모친상(의70)	(분당서울대병원)
2018.06.03	조영희 모친상(실01)	(부산시민장례식장)
2018.06.11	차정희 모친상(식89)	(청구성심병원)
2018.06.13	어주은 모친상(식81)	(건국대병원)
2018.07.15	유용재 부친상(실77)	(삼성서울병원)
2018.08.19	양희선 부친상(아77)	(신촌세브란스)

근조기는 생활과학대학 동문회
평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전달됩니다.

문의: 생활과학대학 02)2123-3094

2018 동문의 날

후배 사랑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일시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11:00 ~ 18:00

장소 백양누리 헬리눅스 홀, 광정환 홀

판매품목 생활과학대학 자체 개발 상품 (무릎덮개 & 손수건, 파우치 등)
화장품 (보타닉센스, 더바디샵, 우태하피부과, 바디오일 등)
패션제품 (의류, 밍크, 신발 등)
패션소품 (스카프, 밍크머플러, 악세사리, 핸드백, 모자 등)
식품 (노니쥬스, 올리브오일, 젓갈류, 고춧가루, 건어물, 건과류 등)
호주직구면세품 (건강보조식품, 마누카 꿀, 애기옹양털, 양태반크림, 치약 등)

동문의 날 기념식 및 만찬

일시 10월 24일 수요일 18:00 ~

장소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



YONSEI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2018년 생활과학대학 동문의 날

~ 후배사랑 장학 기금 마련 바자회 ~
10월 24일(수) 11:00-18:00 / 백양누리

~ 동문의 날 기념식 및 만찬 ~
10월 24일(수) 18:00 /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NO.

응모권

학번 _____
학과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NO.

YONSEI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동문회 수익사업

생활과학대학동창회에서는 해마다 가을동문회 때 열리는 바자회 및 지갑등의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년 각 과 1명씩 총 5명에게 후배사랑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모교 사랑, 후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인생 제2막의 시작

주미영

의생89

함께 나이 들어갈 오래된 좋은 친구들을 다시 얻은 느낌입니다. 그동안 선배들로부터 재상봉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도 우리 학번이 그 재상봉을 할 거라는 건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을 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상봉 행사를 하고 나면 동기들끼리 다시 뭉치게 되고 연세대학교가 진정한 나의 모교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설레임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되지 않던 동기들을 수소문하여 카톡방을 만들었더니, 서로 연락하고 있던 친구들이 또 한 명 한 명 연결해서 초대하고 소식을 전하면서 어느덧 단톡방에는 30여 명의 89의생활학과 동기들이 모이게 되었죠. 25년 만에 처음 연락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추억의 사진 등을 공유하다 보니 마치 어제까지 만나던 사이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학교 다닐 때 모습 그대로 다들 성실하고 멋지고 예쁘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고 있어서 역시 89의생, 참 자랑스런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웠던 친구들이 이렇게 다시 모인 것만으로도 2018년 재상봉 행사는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상봉 당일에는 비가 왔지만, 총장공관에서 점심을 먹고, 많이 변한 백양로를 걷고 백양누리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동기인 경애와 내가 합창단에서 공연한다고 친구들이 응원을 곁하여 대강당에 와서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준 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든든한 친구들이 있어서 덕분에 더 즐거운 시간과 추억이 된 거 같아요. 친구들아, 고마워.

또, 저녁에는 더라운지에서 열린 사은회에서 오랜만에 여러 은사님을 만나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고,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영상 메시지를 같이 보면서 지난 25년이 죽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우리가 예전에 교수님들을 만났을 때보다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교수님들 건강하게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상봉 행사는 인생 제2막의 시작인 거 같아요.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며 더 즐겁게 서로서로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면서 재미있게 나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오랜 벗들을 다시 찾은 느낌이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웬지 든든합니다.

이렇게 좋은 전통을 지켜온 연세의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의 다리가 된 것이 매우 뿌듯합니다.◎



25주년 매듭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25주년

차정희, 조은영, 김정혜

식영89

25주년 재상봉 행사의 세 가지 기억 by 차정희

대학을 졸업한 지 25년, 50살이 다 되어 대학 동기들을 다시 만나는 재상봉 행사. 먼 훗날 그날을 다시 되짚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두근두근 다시봄 재상봉 기념집’, ‘합창단 공연’, 그리고 ‘너무나도 멋지고 고마운 식영과 89 동기들 모습’이다. 대학 졸업 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동기들도 반 이상이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동기들을 불러 모아 행사를 치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나는 식영과 회계일과 함께 재상봉 합창단 단원으로, 또 출판분과에서 기념집을 만드는 일을 맡아 진행하였으니 참으로 쉽지 않은 행로였다. 하지만 누가 시켜서도, 어떠한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그저 이 일이 좋아서 내가 자처한 일이다.

재상봉 기념집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모든 위원이 각자 영역에서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 터라 기념집 준비가 원활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프로젝트의 편집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제약회사에서 20여년간 영업마케팅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제작물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자연스럽게 맡았다. 표지 디자인부터 나두근과 연세봄의 30년 이야기, 에세이 모집, 과 소개 자료 취합, 집행부 활동 편집까지 친구들과 힘을 합쳐 기념집의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나갔다. 책이 나오던 날, 일주일이 넘게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탓에 피로가 밀려왔지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흥분을 가눌 수 없었다. 내 남은 평생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토록 온전히 열중할 수 있는 일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렇듯 재상봉 행사는 나에게 또 다른 두근거림으로 평생 기억될 것이다.

출판분과는
은영, 영현,
선정, 정희
식영인이 접수



2018년 연세 졸업 25주년 기념행사

지난 25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기념책자의
성공적인 출판을 시작으로
축제는 시작되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잠재워주는 비가 내렸다.



셀카봉 앞의
소녀같은 모습들에
절로 미소가

첫 50주년 재상봉
선배님들의
멋진 모습에 감동과
식영인의 자부심이...



그 시절 재상봉 행사 알바에서
이젠 주인공으로
학식메뉴가 고기 바베큐!

꽃보다 누나들
식영 합창단원
호선, 정희, 선정, 정연
정말 멋진 걸...



졸업 25·50주년 기념 재상봉 행사



식품영양학과89
졸업25주년재상봉기념 사은회



반가운 은사님들과의
사은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 꽃을 피웠다.

우리들의 웃음과 이야기는
행사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아쉬움의 비가 또 내린다.



두근두근, 새로운 25년의 시작 by 조은영

선배들에게서 듣기만 했던 재상봉 행사에 어느새 주인공이 되는 나이가 되었다.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동기대표가 되어 보낸 지난 1년여의 시간이 그 시절의 친구들과 소중한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졌다.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싶었으나 행사의 꽃인 합창반은 노래 실력이 따라 주지 않았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있는 업무특성을 살려 출판분과에 참여하여 숨은 실력자들인 식영과 친구들 선정, 정혜, 영현, 정희와 함께 기념책자를 만들었다. 수고하고 노력한 답례일까! 책자는 초유의 품질사태를 초래하였고 e book으로도 만들어 언제든 펴볼 수 있게 하였다. 어색한 첫 만남 이후 훈훈하고 정 넘쳤던 출판분과의 책거리까지 보람도 있었고 즐겁게 지냈다.

지나온 25년을 갈무리하고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시간을 그려보기 위하여 제작한 25주년 재상봉 출판 기념집에는 <나두근과 연세봄의 30년 이야기>가 정리되었다. 지금의 나는 두근두근 가슴 설레던 학창 시절에 꿈꾸었던 모습일까? 이런 시간을 지나며 나는 연세인으로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의 25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채워나가야 할까?

올해 50주년 재상봉을 맞으신 선배님들과 합창단에 참가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25년 뒤의 '나'를 그려본다.

아속했지만 행복하고 감사했던 그 날 by 김정혜

일 년 전부터 기다린 그날이 왔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비오는 날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겠는가, 내 인생에 딱 하루뿐인 기념일인데! 25년이란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낸 적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나지 않는다.

처음 들어가 본 삼성관은 깔끔하고 차분했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선배님들과 전, 현직 교수님들을 뵈니 감동이 었다. 학교가 최선을 다해 우중행사에 불편이 없게 하려는 배려가 느껴졌다. 동기들과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수다 떨고 웃다 보니 25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었다. 여전히 예쁘고 순한 우리 89학번 식영과 친구들...

늦은 시간 사은회에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그간의 삶에 대해 또 지금의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이가 들어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목표가 생겼다. 앞으로 25년을 멋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서 이제부터 25년 후에 즐거운 졸업 50주년을 맞는 거다. 벌써 설렌다.◎

어서와, 재상봉은 처음이지?

박지연

주생89

2018년 5월 12일,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는 자료집과 기금 마련에 참여한 동기들 사진과 말풍선을 수록하였는데, 아뿔싸! 사진이 뒤바뀐 친구, 자료집 원고 마감 이후에 참여해서 누락된 친구 발생!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말풍선 완결판' 명단을 다시 정리하여 수록하는 것으로 재상봉 후기를 시작해본다.



박지연

너희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사랑해 ♡



문소라

마음만은
25주년에도 50주년에도 젊음!



허지은

나이 먹느라 다들 수고했어!



유은숙

늘 그리운 친구들 만나서 반갑다



박혜선

반가운 친구들아!
함께 하니 너무 좋다^^



박지민

반가우이~~ 친구들~
모두 모두 행복하기~~^^



임현경

일상에 녹아있는 주생활
언제까지나..! ♡



정혜승

고마워. 너희와 함께여서
내 젊은 날이 더 찬란했어!



모정현

만날수록 좋은 친구들~
언제까지나 우정이 함께 하길~ ♡



유혜정

너와 나는 태양처럼 젊었다



김주원

그대들은 누가 뭐래도
내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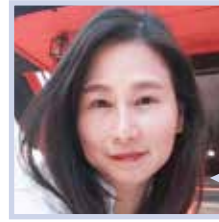
최성희

어서 와~ 재상봉은 처음이지?



최은규

멀리 있어 못 만나는 친구들,
내 뒤편까지 좋은 추억 만들기를



김두나

반갑다 친구들~
좋은 추억 함께 하자



전원경

은행잎 흩날리던 백양로를
언제나 기억합니다



박지원

너희들은 너희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김희경

고마운 인연 쭉쭉
이어 가자꾸나~



곽희정

눈 감으면 사라질까
꿈만 같은 친구들~



이광윤

친구들아, 처음같은 수야 없겠지만
그 떨림, 열정, 젊음을 기억하자~



김소영

멋진 내 친구들!!
오래오래 보자~ 반갑다!!

재상봉 행사에 기금 마련과 한 마디 글로 참여한 내 친구들 명단을 다시 정리하다 보니 그날의 감동이 다시 밀려오는 것만 같다. 행사 당일에 전해졌던 생생한 후기를 원고에 담기 위해 주생89 단톡방에서 그날 공유한 사진과 후기 글을 뽑아서 다음장과 같이 모아보았다



박지민: 25주년 대표 박지연 인사말 중~~^^

유은숙: ㅎㅎㅎ 장소 옮기면 좀 알려줘



문소라: 내려와! 사진 찍자! 애들아 내려와!!!!

유은숙: 현경아. 너 다시 와

김소영: 일층에 들어올 때 포토존 있더라 ㅋㅋ



박지연: 일찍 도착해서 생과대 행사에 참석한 친구들과 축하 케익 앞에서.

김희경: 사진 보니 다들 예쁘고 더욱 아쉽다. 난 중국에 갈 일정과 겹쳐서 결국 가지 못하고 말았다네. 다들 좋은 시간 되기 바래~

곽희정: 너네 다들 너무 예쁘다! 진정 올해 혹은 내년에 50이니?



윤복자 교수님: 오늘 너무 좋았고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숙 교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소중한 인연으로 들어와준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한 인연으로 들어가게 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이 말을 전하고 싶으니 참석한 모든 동문들에게 꼭 전달해주시기를! 수고 많았어요

박영순 교수님: 오늘 정말 즐겁고 기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꽃도 선물도 모두 너무 고마웠어요!! 사진두요...!!



허지은: 합창단 리허설 장면 촬영!

유은숙: 우리 2층 맨 앞줄에 있어(2층에서 촬영)

곽희정: 애들아, 대강당 입구에서 기념책자 꼭 픽업해~

박지연: 책 받아갈게~

허지은 합창 정말 맛있었어! 수고 많았고 고생한 친구들 고맙다! 또 만나.

최성희 교수님 단체로 뵈니 마음이 짠했네. 지연과 운영진, 합창단 고마워. 모두 반가웠고.

곽희정 다들 너무 반가웠어. 조만간 또 만나자.

박지원 다들 곧 또 봐.

박지민 모두들 간만에 얼굴 보니 정말 반갑고 기분 좋더라. 다들 변함없는 모습에 감탄. 특히 교수님들 열정에도 감탄

박지연 어제 드디어 우리가 뭉쳤는데 전날 밤부터 다음날 종일 이어지는 행사 신경 쓰느라 공연 끝나고 나서는 거의 정신줄이 끊어지는 기분이다.

마지막 공식 순서였던 사은회도 교수님들 모시는 자리라 이런저런 신경을 쏟았더니 나중엔 말 그대로 멘붕. 만나기를 고대했고 즐겁게 행사 치르고 나면 엄청 훈련하고 기쁨 줄 알았는데 의외로 허무하네. 막상 너희랑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눈 것 같고 말이지. 하여튼 자랑스런 내 친구들! 기념집에 남긴 내 고백대로 너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어네.

사랑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게! 어제 만나 반가웠던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더 아쉽고 보고 싶은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어디에 있든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니 오늘 만큼은 평안한 안식이 있는 저녁시간 보내기를 바래! 사랑한다♡

허지은 지연이 정말로 고생 많았다. 폭 쉬고 기력 회복한 다음에 어제 못한 뒤풀이 하자. 날이 꺾어서 에너지가 더 딸렸을 거야. 몸 챙기고!

곽희정 나도 오후에야 쓰러져 잠들었다가 이제 일어났네. 지연아! 너 아니었음 아무도 그만큼 못했을 진행이야. 정말 고마워.

임현경 지연이 어제 연설도 넘 잘하고 열일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어. 고마워! 아쉽게도 못다 나눈 이야기는 다음 모임을 고대할게.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보고 하루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마음 뿌듯했어. 특히 희정, 소영은 정말 오랜만이어서.

김소영 애들이 정말 너희들 얼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다. 다들 멋진 모습 간직해 내가 다 엄마 맘으로 뿌듯하더라~~

모정현 시어머님 병원에 계셔서 하루종일 병원에 있다가 이제야 답변 남겨. 안되는 일정에 무리하게 합창까지 했더니 결국 고대했던 당일 행사에 몸살기에 두통으로 어제 사실 약간 멘붕이었어. 갔다 와서 넉다운. 그래도 합창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구고.

교수님들 주옥 같은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았지만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정말 아쉬웠어. 장소가 어디든 어떡리. 이리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정말 행운으로 생각해.

곽희정 정현이가 내 옆에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몸이 안 좋다니 잘 쉬고 얼른 회복해.

임현경 이번 행사의 숨은 공신 정현아! 폭 쉬고 얼른 회복하길.

박지연 정현이 어제 종일 두통 땀에 너무 마음 아프고 안쓰러웠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이지 폭 쉬고 부디 편안한 밤 맞이하길♡

박지민 정현, 지연~ 모두 힘들었구나. 정신 없이 다니는 바람에 미처 몰랐네. 다들 너무 고생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간만에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음에는 보다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자. 사랑한다, 주생89! ♡

박지원 에고.. 힘든 여건에서도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일 치러냈구나. 대단하다. 이번에 애쓴 친구들 다 존경하고 감사해. 다들 얼른 회복하고 일상속에 편안히 돌아가길 바래.

김주원 나는 아직도 사무실이야. 정현이도 지연이도 다들 너무너무 바쁜 친구들인데 티 안내고 다 감당해줘서 고맙다!◎

다시 만나 너무나 잘 통하는 아동 89들!

이희정

아동89

연세동산의 발을 딛게 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나에게 재상봉 행사는 앞만이 아니라, 옆도 보면서 순간순간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작년 봄쯤 박주희 전 학과장님은 재상봉 행사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 기부금 모금 요령과 행사를 준비하는 큰 틀을 미리 알려 주셨는데, 사실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1월이었다. 그 이전에 작년 10월부터 대외협력처로부터 기대표 모임에 대한 연락을 여러 번 받았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본격적인 준비나 참여를 하지는 못하면서 막연하게 행사라는 게 있지 라는 무심함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1월 모임 이후 ‘아, 이제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재상봉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합창과 댄스를 비롯하여 시간을 내야 하는 행사도 있었고, 아동학과 친구들의 주소록을 만들어야 하는 했는데, 모든 일은 동기들의 협조와 배려로 생각했던 것보다 척척 진행되어서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뿌듯하였다.

우리 아동학과 89학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한번 뭉치면 큰 힘을 내는 능력자들이 참 많았다. 그런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은 행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합창 시즌2를 준비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합창은 2월 초부터 월요일 저녁마다 연습해 왔는데, 특히 매주 참석하는 생활과학대학 50주년 선배님들의 열



성은 참 인상적이었다. 가족별장에서 농촌생활의 즐거움을 나누어주셨던 김병두 50주년 식생활과 대표님과 2018년 상반기 모든 일정을 재상봉 행사를 중심으로 조정하시면서 같은 소프라노 파트 연습에서 자주 뵈었던 주생활과 최미라 선배님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뒤지지 않도록 늦은 시간이지만 월요일 연습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25년이 지나 다시 만나도 너무나 잘 통하는 아동학과 89학번 친구들과 함께 치른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얻은 많은 수확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서로 힘을 모으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학과별 분담금을 모으는 일은 모든 과대표의 부담이었을 것인데, 아동89의 경우에는 서로 술선수범하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분위기였던 점이 참 고맙다. 25주년 재상봉 행사 집행부 친구들도 비록 1월부터 합류한 후발주자 과대표였지만, 집행부 친구들은 모임 때마다 진지한 태도로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팁을 제공하였고, 동기들의 어려운 질문에 대해 대응하기 난처한 순간순간에 집행부 친구들이 항상 함께해 준 점도 고맙기 짝이 없었다.



아동학과 동기 중에도 통 크게 도움을 주면서도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고, 준비과정에서도 과대표인 나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챙기는 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큰 행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합창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것이 염려되었으나, 지휘를 맡은 예원, 예고 동창인 서효정 지휘자는 한 주일이라도 연습에 빠지게 되면 직접 안부 전화를 하면서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했고, 서시라는 어려운 곡 중 아름다운 독창을 맡은 예고 동창 영주도 목감기와 컨디션 난조에도 불구하고 합창연습에 참가하였다. 이 두 친구 외에도 초등학교 시절 같은 피아노 선생님께 레슨을 받던 기악과 피아노과 89 대표 전연경 예일초등학교 후배는 합창연습 때마다 극진히 나를 챙겨주었고, 동요작곡가인 피아노과 은상이를 따로 소개해 주기로 해서 아동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우리 아동89들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연세의 스승님, 선배님, 친구들과 함께했다는 기쁨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된 점이다. 행사준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과대표보다 더 많이 격려해주셨던 이은해, 김경희, 정문자, 이영, 이숙현, 박경자 교수님 모두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부족한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강민주 아동학과 학과장님은 행사 중간중간 격려의 전화를 주셔서 지속적으로 큰 힘을 보태주셨고, 2월 50주년 선배님들과 각 과대표와의 회의를 주선하신 하미경 학장님, 현재 생활과학대학 동창회를 이끌고 계신 이진경 동창회장님, 동창회 모임을 통해 크고 작은 팁을 알려주신 김희영 편집이사님, 조미혜 총무님, 짧은 메일인데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다 챙겨서 알려주신 86학번 송혜린 선배님이 정말 고맙다. 만일 송혜린 선배님이 전화를 주시지 않았

다면 지금같이 풍성한 행사가 가능했는지 아찔하다. 거의 1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인 코칭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나뿐 아니라, 문옥이 안부까지 챙기는 모습을 통해서 왜 86학번이 재상봉 행사를 그렇게 잘 치렀는지 알 것 같았다.

행사가 가까워지면서 준비하는 방식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87학번 재상봉 대표 김상림 선배님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고, 학교 다닐 때 학술부 활동을 함께 하면서 선배의 자리를 확고하게 느끼게 해 주셨던 88학번 신윤승 선배님은 행사를 앞두고 약 1주일 전 평창동의 전망 좋은 카페에서 따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자상하게 격려해주셨고, 그 이후 1주일간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긴 듯하여, 순조롭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행사준비 시작 이전인 2017년 10월 함께 생활과학대학 동문의 밤에 참석하고 2018년 1월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뒷풀이 모임과 이후 동기 모임에서 술선해서 장소를 섭외하고 연락을 도맡아 애써준 영화, 공학관에서 연세대 아동89 재상봉 행사 기념 강의를 하고 준비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도와준 성춘이, 3월말 전체 집행부 행사에 직접 참석하고 전체 집행부 감사까지 말을 뿐 아니

라, 89골프클럽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 정숙이, 멀리 미국에서 재상봉 행사를 위해 잠정적으로 생업을 놔두고 전전날 도착해서 계속 애써서 일을 도와주고 행사 끝난 다음날에 북촌과 부암동을 산책하면서 미국의 휴양지 사이트와 투자 노하우까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준 이은영, 미국에서 동화작가로 분주할 텐데, 재상봉 행사 기념 책자의 글과 사진을 편집하고, 두근두근 에세이를 보내준 여림이, 딸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으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은 현수,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 안나, 선아, 아동 89 단톡방의 1등 공신인 문옥이, 재상봉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저녁식사 자리까지 와서 분위기 메이커로 독특한 역할을 다한 김은영, 재상봉 행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훌륭한 조언으로 감동을 안겨준 미경이, 집안일 등으로 분주할 텐데 행사에 적극 참가한 종은이와 현주, 바쁜 와중에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난희, 모임에서 정겨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정환이, 재상봉 행사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비판적 질문으로 전체 집행부를 긴장시켰었던 은정이, 교수님들 꽃다발을 정성껏 준비한 나리, 그리고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으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부탁하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한



없이 겸손하기만 한 아동학과 89학번의 많은 친구들의 사랑은 진정 고맙고 또 감사할 뿐이다.

역시 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만큼 항상 신뢰할 수 있고, 든든하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다. 아동학과 친구뿐 아니라, 특히 합창연습을 하면서 알게 된 89학번 친구들은 하나 같이 서로를 배려해주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서로 위로해주고 아끼고 공감하면서 화합을 실천하는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귀한 동기들이었다.

같은 과대표의 위치에서 2월 학장님과의 모임 이후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행사준비에 힘이 되었던 의생활학과 주미영 대표, 식생활학과 조은영 대표와 주생활학과 박지연 대표의 따뜻한 조언과 정서적 지원은 행사가 끝난 지금까지 마음속 깊이 느껴지고 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확실히 아동학과를 선택한 친구들은 순수하고 조건 없는 우정을 베풀어주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재상봉 행사에서도 아동학과 동기 친구들의 따뜻한 지원은 행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그리고 마무리 시기인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2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찾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계획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각자의 위치에서 정점을 찍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에 이 같은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25년을 알차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된 점이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금 연세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학교 때 큰 가르침을 받았었던 교수님들께서 재상봉 행사 중 저녁 식사 시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금언들을 나누어 주시고, 1989년 처음 뵈었을 때와 다름없을 만큼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응원해주고 계시는 점 역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앞으로 아동학과 89학번 친구들의 미래가 지금 처럼,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날 것을 기대하면서 50주년 행사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한다.◎



졸업 50주년 재상봉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상선

의생64

졸업 25주년, 50주년 전체학과 대표자 첫 모임에 총장님이 인사 말씀에 현재의 나이에서 15살을 뺀 나이로 삶의 질을 높여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꿈과 열정을 가진 동문님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느덧 25년이 흘러 50주년 행사에 또 대표를 맡게 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격려 말씀에 힘입어 재상봉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졸업한 22명 중 연락되는 친구 11명에게 행사, 뒷풀이 만찬, 여행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발전기금 모금 협조 등을 공지하면서 안부를 묻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준비하였습니다.

기념책자 제작을 위해 추억의 자료, 사진, 학생증, 티스푼 등의 물품을 챙기면서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즐거웠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실제 주인공들의 소식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행사 참석 여부를 선뜻 알려줄 수 없다는 말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가끔 연락하며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정대학 초대 학장님이신 최이순 학장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학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배려와 사랑으로 주생활과에서 의생활과로 전과하게 해 주셨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학장실로 불러



격려해 주셨습니다. 졸업 후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게 되어 추천서를 부탁하자 배달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절에 즉시 항공우편 속달로 보내 주셨습니다. 학장님의 사랑으로 강의를 맡게 되었으며 첫 강의를 받아 감사의 뜻을 전했더니 가정관 뜰에 라일락 나무를 식수하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 주셨습니다.

5월이 되면 제가 살고 있는 단지내 아파트 길목 라일락 나무에 꽃이 피면 학장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배려에 가슴이 찡해진 적이 많았습니다. 생전에 자주 찾아 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여 죄송할 뿐입니다.

오래 전에 가정대학 건물 건립 모금을 위해 연락되는 친구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모금운동을 하러 다닐 무렵,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성의껏 동참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수고한다며 맛있는 오뎅국을 대접하며 반기던 친구의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에 자랑할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김호 친구는 2017년 10월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기부하였으며 50주년 재상봉 행사 전체 10명 이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김미희 친구는 졸업 후 미술을 재전공하여 화가가 되어 개인전 7회, 프랑스 초대전 2회를 하였으며, 2018년 연세졸업 50주년 재상봉기념책자인 <이 푸르른 5월의 귀거래사>의 표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책자 132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김미희 동문의 그림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두 친구가 발전기금도 내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재상봉 행사를 위해 합창단을 모집한다기에 과대표로 책임감을 가지고 신청하여 64학번 전체 10명의 단원 중 하나가 되어 2월부터 5월 개교기념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89학번 120명의 후배님들과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나는 음치인데다가 가사가 외워지지 않아 걱정이 많았지만 연습하러 가면 후배님들의 배려와 소통으로 젊어지는 것 같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열심히 연습한 결과, 개근상도 받고 난생 처음 드레스를 입고 대강당 무대에 서서 합창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또 64학번 전체 대표님과 건축과 동문 격려금으로 후배님들과의 뒷풀이 모임에 참석하여 젊은 후배님들과 거리감 없이 소통하는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연세89합창단(두근두근 연세 또 다시 봄) 전체 카톡방은 연주회, 문화살롱, 야갈전 관람 등이 소개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하라, 연세! 연세89합창단!

2018년 재상봉 행사일이 다가왔습니다. 건강 때문에 참석이 불분명했던 부산 친구 두 명이 행사에 참석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섯 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단과대학 행사장에서 행사를 마친 후에 총장공관 뜰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비 때문에 노천극장에서의 기념 사진촬영, 기념 행진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부산 친구 두 명이 재상봉 공식행사, 축하행사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대강당 무대에서 합창 연습을 하였습니다.



연습을 하다 친구들이 앉아 있는 쪽을 보니 부산에서 온 한 친구가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음악에 맞춰 추고 있었습니다. 춤을 출 상황이 아닌 친구였는데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찡하였습니다. 흥겨워하는 친구에게 내가 손을 흔들었더니 더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제지해도 춤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흥겨운 춤을 춘 것으로 스트레스를 다 풀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날 1박2일 양평 오크밸리 여행에 우리 과에서는 나만 참석하게 되어 매우 섭섭했습니다. (참석인원: 23명)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는 전날 잠 못 이루던 것처럼 이 나이에도 잠을 설치고 일찍 일어나 여행가방을 끌고 출발지로 갔습니다. 재상봉 본 행사를 치르며 친숙해진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전날과 달리 날씨가 좋아 상쾌한 기분으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지낸 친구들의 근황을 서로 알기 위해 차례대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이 과거

사, 숨겨둔 옛날 이야기를 부끄럽없이 하여 소리 내어 웃었고 호기심 어린 질문이 이어지며 재미를 더하는 가운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크밸리에 도착해서는 추첨으로 3개의 객실에 나누어 투숙하였고 종이박물관 견학과 건축물,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며 모처럼 힐링 하게 되어 행복하였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숙소에 돌아와 못다한 이야기를 하다가 늦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여러 친구들이 서울에서 준비한 음식(떡, 빵, 과일)을 먹고 여주에 있는 미륵사를 탐방하여 문화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상봉 행사 및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사에 여러 친구들의 후원과 훈훈한 마음씀씀이가 보기 좋았으며 부러웠습니다.

10년 후 다시 재상봉행사가 있게 된다면 이번 행사에 참석한 친구는 물론이고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친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재상봉 후기

김병구

식생64

2018년 재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모임이 지난해 10월 총장공관 영빈관에서 학과별 대표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작되었다. 대외협력처의 설명에 의하면 2018년 재상봉 대상자는 25주년 4,500명 50주년은 1,600명이고 참여 목표율을 35%(2017년은 32%)로 잡았을 때 25주년 1,600명, 50주년 580명으로 총 2,000명 이상이 함께 치르는 큰 행사였다.

각 학과 대표자의 역할은 동기들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행사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기념문집 출판에 협조하며 재상봉 기금을 모금하고 합창단 가입 등 재상봉 축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생활과학대학은 50주년 재상봉 행사가 처음이어서 식생활과 대표를 맡으며 연세대학만이 전통적으로 개최하는 이 귀한 자리를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생과대 1회의 만파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했다.

각과 대표자들은 매월 모이는 대표자모임 외에도 조직, 출판, 재무, 행사분과 중 원하는 분과에 소속하여 행사를 준비하였다. 나는 합창이 재상봉의 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행사분과에 지원하여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합창단에 가입하였다. 합창연습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하였는데 64학번은 우리 생과대 동기 6명을 포함하여 10명이 참여하였고 모두 너무 열심히 참석하여 개근상에 보충수업까지 받는 열성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연세 다시 봄> 합창단의 일원으로 100명이 넘는 후배들과 친목을 나누며 함께한 시간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친구들의 연락처가 어느 정도 파악된 2018년 1월, 식생활과 1회 카톡방을 만들어 재상봉 행사안내 첫 공지를 시작했다.

“친구들아! 오랜만이지? 나, 김병구야~ 올해가 우리 졸업한 지 50주년이래 5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학교에서 재상봉 행사가 있어서 우리 과 카톡방 만들어 연락하려고 해. 모든 행사 주관은 대외협력처에서 하고 각 과별 대표를 선정하여 매월 회의를 하고 세부 내용이 정해지면 여기에 공지하려고 해. 지

금까지 친구들 주소 업데이트하였는데 31명 중 아직 7~8명은 찾지 못했어. 우리 꽃다웠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보자.”

그 후 4개월 동안 멀리 흩어져 있던 친구들과 반가운 소식을 나누며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도 조금씩 가까워져 갔다. 준비과정에서 각과 대표가 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라면 재상봉 기금을 모으는 일일 것이다. 서울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논의 끝에 기본 모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가급적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발전기금은 개인별 자유의사에 따라 모금한 결과, 많은 친구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졸업생 31명 중 19명 (61%)이 모금에 참여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행사 당일에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17명이 참석하여 첫 만남의 장소인 생활과학대학 환영식 자리에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환영식장에는 다과와 함께 하미경 학장님을 비롯한 현직 교수님은 물론 은퇴한 윤선, 양일선, 이영, 곽동경 교수님도 함께 자리하여 재상봉 동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으며 이진경 동창회장과 임원들도 참석하여 선물까지 마련해 주어 송구스럽고 고마웠다.



생활과학대학 환영 행사가 끝나고 총장공관으로 옮겨 맛있는 식사를 한 후 학창시절 추억이 담긴 청송대 숲길을 따라 대강당 본 행사장으로 이동하였다. 비가 온 탓에 노천극장 포토존에서의 사진촬영은 취소되었다.

대강당에 함께 모인 동문들은 1부 본 행사에 이어 여러 동문이 준비한 2부 행사에서 그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여 연세찬가, 아카라카, 합창단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모교에 대한 사랑과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는 감동의 순간을 만끽하였다.

학교행사가 끝나고 생과대(의,식,주) 동기들만의 저녁 만찬을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가졌다. 제자 사랑이 각별하고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셨던 고(故) 최이순, 이기열 두 학장님과 먼저 하늘나라에 간 친구 황인태, 송인숙, 임영자, 김영숙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었고 최이순 학장님의 시 <그대 가는 곳 마다>를 김연희 친구가 낭송하는 시간을 가지며 먼저 떠난 은사님과 친구들을 그리워하였다. 모임 마지막에는 손에 손을 잡고 <친구여>, <만남> 등을 합창하며 재상봉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였다.

다음날은 1박 2일 일정으로 오크밸리로 여행을 떠났는데 친구들이 차량, 콘도 식사를 후원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옥에 티라면 미국에서 온 친구 손지영이 행사 당일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수술 대신 석고붕대 치료를 받고 출국하였는데 출국 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준 대외협력처 전해정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50주년 행사를 마치고 되돌아보니 모든 게 감사하고 연세인임이 자랑스롭다. 우선 반세기 동안 흠어져 지내던 동기들을 초대하여 아름다운 잔치를 베풀어준 모교와 친정에 온 듯하게 재상봉 동문들을 따듯이 맞이해준 생활과학대학에 감사드린다. 50주년 식생활과 대표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격려해준 동기들과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용기 내어 함께해 준 친구들에게 듬뿍 사랑을 담아 고마움을 전한다.

헤어지는 버스에서 많은 친구가 “너무 행복했었다.” 라는 소감을 이야기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며 마친 우리의 재상봉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이러한 재상봉 행사는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긍지와 애정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계속 발전하여 동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되는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2018년 후배사랑 장학금 수혜자

여러분을 마음껏 응원합니다

아동가족16 김소정

식품영양16 이경민

의류환경16 신재희

실내건축13 김우영

생활디자인13 정종호

* 후배사랑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후배들을 대상으로 학과장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한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배우는 즐거움으로 의문을 극복하고

신재희

의류 16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신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항상 모든 것이 명쾌하지 않고 안개에 쌓인 듯 의문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길을 선택한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불안은 가끔씩은 너무 벅차 어깨의 짐과 눈앞의 도전을 모두 내팽개치고 도망치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킨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껴졌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떨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항상 나아가는 길에 불안을 안고 지내온 제게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기분입니다.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할 것 없는 저의 성실함을 높게 평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당장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결하고자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문과 불안 속에서도 배움은 항상 즐거움을 주었고 지식의 탐구는 모든 의문으로부터 도피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민 속에서도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이 무엇

보다 큰 안정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도움 주신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또다시 힘든 시기를 지나며 수많은 의문 속에서 방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힘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제가 받은 은혜를 다시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제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신재희 드림

즐겁게 공부하는 중에 목표를 찾아서

이경민

식영 16



이번에 장학금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적이 우수한 학우들이 매우 많아서 장학금을 신청하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 또한 처음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게 되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드리게 된 점이 뿌듯합니다. 3학년을 맞이하여 성적 향상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번 학기에 들은 수업이 이전에 들었던 내용보다 전문적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와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렇게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다음 학기에는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다른 혜택을 받아 교환 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녀온 후 4학년에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 계속 장학금을 받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다른 우수한 학우들과 함께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남은 대학 생활에 더욱 학업에 힘쓰고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 선배님들처럼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연세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장학금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 선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행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18년 8월

이경민 드림

부모님께도 기쁨이 된 꿈을 이루는 원동력

김우영

실건 13



이러한 장학금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미숙해 한통의 편지를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작년 가을학기에 복학하였습니다. 1, 2학년때는 그저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고 학업 외의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동기 여학생들의 졸업과 취직 그리고 다른 동기 남학생들의 확실한 진로 선택 등을 보며 혼자 뒤쳐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지난 학기부터 수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수강 과목의 평가가 높게 나왔고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학교 수업에 대한 적응을 마쳤고 이제 학업과 함께 수업 외적인 부분 또한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복학 후 1년 동안 시간을 버린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노력 끝에 장학금이 라는 큰 선물을 받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장학금을 받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전화 드렸을 때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등록금, 자취비용, 생활비까지 부모님께 부담 드리고 있는 게 죄송스러웠지만,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열심히 하라.” 고만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이후 첫 효도를 한 것만 같아 아직도 기분이 좋고 두근거립니다.

이번 장학금을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아 학업, 포트폴리오에 몰두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이런 힘을 주신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김우영 드림

값진 기회에 감사하고 받은 만큼 베풀기를 다짐하며

김소정

아동 16



먼저 저에게 값진 기회를 주신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업에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의 모든 경험은 제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우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새로운 시야를 배우기도 하고,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가족학과 전공 수업에서의 심도 있는 배움을 통해 진로 및 관심 학문 분야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 삶을 영위하는 1차적 관계이며, 개인의 자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은 부모와 교류하는 방식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기의 가정환경은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적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도움을 얻게 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의 학부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받은 만큼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남은 2018년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년 8월

김소정 드림

고비 중에 받은 선배님들의 선물

정중호

생디 13



동기들은 대부분 졸업하여 사회에 나가 있거나 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3학년 2학기를 맞았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제게 맞는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년 동안 휴학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각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 결심했을 때, 너무 늦게 대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 또 늦은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선배님들 덕분에 장학금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될 수 있어 행복한 마음입니다. 공부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몇 번의 고비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3학년 2학기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저에겐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제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장학금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학과수업을 쉬었기 때문에 생활디자인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톨의 숙련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디자인 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휴학하면서 수시로 디자인 전시회에 다니며 소양을 쌓

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 동안 여러 학과 수업을 통해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학습하고 또한 병행하고 있는 경영학과의 수업에서 배운 마케팅과 연계하여 디자인에 대해 심화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제가 이런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는 생활과학대학 총동문회 선배님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과를 이루어 냈으로써 같은 과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발전해나가는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8월

정중호 드림

하계 농촌 봉사의 추억

박해경

주생69

지난여름 주생활과 동기들의 정기모임에 한 친구가 옛날 사진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들 모두 모자를 쓰고 돌멩이를 모아 나르는 사진, 어린이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가르치는 사진, 냇가에서 아이들을 목욕 시키는 사진, 그리고 소풍가서 함께 노는 사진 등등 여름방학에 농촌 봉사 갔던 사진이었다. 학생시절 생기 넘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둘러보며 사십 여 년 전 아련히 먼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71년 3학년 여름방학, 주생활과 여학생 20여명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충청남도 예산을 향하였다. 처음 해보는 대학생 여름봉사활동,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머릿속에서는 심훈의 소설 <상록수>를 떠올리고 있었다. 예산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조금 시골로 들어가 한 마을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 마을에 한 팀이 머물고, 다른 한 팀은 보육원(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함)에 머물렀다. 내가 속한 팀은 보육원에 있는 방 하나에 짐을 풀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보육원은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두 30여 명으로 그 중에는 기저귀를 찬 아기부터 십오 육세 쯤 되어 보이는 소녀들도 있었다.

우리는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하였다. 한 친구가 노래지도를 하고, 나는 풍금으로 반주를 하였다. 또 율동도 함께 하였더니 아이들과 쉽게 친해졌다. 저녁시간에는 아이들의 여름방학 숙제를 도왔고, 중학생의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렇게 지내다보니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과 친해져서 서로 장난도 치며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다. 또한 냇가에서 아이들 목욕을 시켰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흘랑 벗고 냇가로 뛰어드는 아이들의 천진스런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하루는 간식을 준비하여 뒷동산으로 소풍을 갔다.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율동하며 간식을 나누었다. 언덕을 내려오는 사진도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 사진은 마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고 하였다. 사진을 다시 보니 언덕위에 아이들이 웅기종기 있고 우리들이 군데군데 쪼여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도레미송♪♪'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마을 앞길을 넓히는 일도 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돌멩이를 모아 나르고 길을 조금씩 넓혀갔는데 여학생 몇 명의 힘만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동네 청년 한 명이 도와주어 일을 끝낼 수 있었다. 나는 이 작업이 힘에 겨웠던지 그날 밤 꿈꿈거리며 잠을 설치기도 했던 일이 기억난다.

보육원 마당에 모깃불을 피우며 평상위에 앉아 아이들의 손톱을 깎아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도 선하다. 어느 날 아기들 중에 세 살배기 여자아기 한명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예쁘게 생긴 이 아기는 언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기는 얼마 후에 미국으로 입양될 예정이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무척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나는 정말 기분이 이상했다. 한국 고아가 미국으로 입양되는 이야기는 신문에서 읽었지만 직접 당사자를 만나기는 처음이어서 그랬을까? 내 가슴에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오갔다.

대개 열 살이 넘는 소녀들은 아기를 돌보기도 하였고 청소를 하거나, 감자 껍질을 벗겨내고 채를 곱게 썰어서

기름에 볶아 반찬을 만들곤 하였다. 또 계속해서 설거지도 하였다. 나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원장수녀님께 여쭙어 보았다. 원장님은 이 아이들이 만18세가 되면 여기를 나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개 여자아이들은 그 때에 결혼하게 되는데, 시집에 가서 음식 만들거나 청소, 빨래 등을 잘 하지 못하면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고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에게 음식 만들기, 청소, 그리고 빨래 등등 가사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저 어린소녀들이 안쓰러웠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의 냉혹함에 당황스러웠다.

당시는 식량부족으로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펴며 국민들을 교육하던 시절이었다. 봉사활동의 마지막 날 밤, 마을회관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가득 모였는데 전기가 없어서 후레쉬를 비추며 가족계획에 관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께서 “처녀가 어떻게 안다?” 하니 다른 분이 “기래도 선상님인디 어서혀 봐유~” 라고 해서 모두들 크게 웃으며 화기애애(?) 한 분위기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들 중에 가장 나이가 위인 친구가 피임을 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피임법을 설명하였다.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서로 계면쩍어 킁킁 웃었고, 우리들도 쑥스러워 쿡쿡거리며 웃고 서 있었다.

우리가 떠나는 날 아침, 아이들은 무척 섭섭해 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아이도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우리는 서로 정이 많이 들었구나 싶었다. 한참 동안 아이들과 헤어지느라고 시간이 흘러갔다. 서운한 눈망울의 아이들을 뒤로하고 동네 어른들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마을을 떠났다. 우리들의 마음도 착잡하였다. 찢한 마음을 안고 예산읍에 사는 친구 어머니께서 우리들을 위해 점심상을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갔다. 그동안 서툰 솜씨로 끓인 찌개 하나로 버티던 우리들은 그 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도 워낙 좋으셨기에 정말 꿀맛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사진을 한장 한장 다시 들여다보면서 거의 반세

기전 젊은 날의 추억에 젖었다. 한 친구는 뜨거운 한 낮의 밭일과 아궁이에서 눈물 흘리며 구운 감자의 꿀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친구는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신기한 빛을 내던 반딧불이와 캄캄한 밤에 개울가로 목욕 갔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 때를 그리워하였다.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가족계획 수업에 고부가 두 손 꼭 잡고 나와서 피임약을 받아들고는 어색하고 부끄러워하며 순박하게 짓던 그 해맑은 미소라며 함께 웃었다.

여름봉사활동은 나에게 대학시절 낭만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시골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온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 고픈 아이들과 정을 붙이고 서로 좋아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금방 떠나간 서울 언니들이 야속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봉사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왔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서운해 하던 그 눈망울들을 떠올리며, 그 때 그 아이들이 어디에선가 곳곳이 잘 살아가기를 기원해 본다. ◎



아동학과 77학번들의 노르웨이 환갑여행

김명순

아동77

유명한 58년 개띠(대부분)인 아동학과 77학번은 환갑을 맞아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나기로 5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 그 긴 세월을 회장이 모두의 여행비 적금을 관리해주어 매달 10만 원씩 모았고 드디어 2018년 6월 30일에 10일 일정으로 16명이 출발하였다. 여행지기가 여행사와 씨름하며 무리한 일정이 되지 않도록 늦은 아침에 출발하기, 숙소에 일찍 도착하기, 식사한 여행지가 아닌 진짜 절경 보기 등의 일정을 짰다. 누군가는 익숙함에 늘 편안해하지만, 누군가는 그 익숙함이 싫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는 행위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먼저인데 우린 충분히 준비하였고 새로움을 기대하며 떠났다. 그래서 여행의 끝이 즐거움과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임을 출발 전부터 알 수 있었나 보다.

첫째 날, 10시 20분발 핀에어로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한 후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후 4시 30분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공항에 도착하였다. 노르웨이의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4배인데 인구는 520만 명에 불과해서 그런지 오슬로 시내를 잠시 벗어나자마자 드넓은 초록의 목초지와 목조주택, 평화로운 호수들이 나타난다. 첫날 머문 곳은 오슬로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떨어져 있는 왜빅(Gjøvik)이라는 조그만 도시이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왜사(Mjøsa)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이다. 밤 12시가 되어도 밝은 날씨가 그대로인 햇살 좋은 백야다. 이맘때의 햇살을 일 년 동안 그리워했을 노르웨

이인들은 밤이 지나도록 호텔 밖 야외 레스토랑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총 20시간 걸려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온 우리는 저녁을 먹고 첫날을 보냈다. 룸메이트는 매일 밤 호명되는 대로 무작위로 바뀐다. 첫날밤 첫 룸메이트는 첫사랑 같았다.

둘째 날은 다양한 청어조림과 노르웨이 국민이 사랑한다는 캐비아를 계란 반숙 위에 짜서 아침을 먹었다. 우리의 여정은 네모를 그리듯 노르웨이 북쪽으로 달리다가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후 다시 오슬로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버스는 1994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릴레함머(Lillehammer)로 향했고 이곳에서 리프트를 타고 정상에 올라 멋진 노르웨이의 강과 산,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즐기다가 돔보스(Domås)라는 작은 마을에서 점심을 하였다. 점심 후 가는 길 내내 한국에선 잘 볼 수 없는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 기암괴석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폭포, 만년설이 연이어 나타난다. 눈 휴식 여행이다. 루트 63번인 트롤스티겐(Trollstigen: troll 요정 + stigen 사다리) 길을 버스가 오른다. 거대한 화강암 바위산이다. 11개의 급커브 길을 계속 오르는데 절벽 쪽에서 보면 아찔하길 여러 차례, 드디어 산꼭대기에 올랐다. 자연의 광활함에 잠시 질리고 친구들이 함께 지르는 환호성 속에 전망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향한다. 1050미터 산 속에 있는 150여 년 된 그로틀리(Grotli) 산장 호텔은 품위 있고 고풍스런 곳이었다. 이



곳에서 우리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60을 위해 케익과 와인, 장미로 서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고했다, 건강해서 고맙다, 지금 이대로가 참 좋다' 는 말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자신에게 축하해 주었다.

셋째 날은 산장 호텔에서의 짧은 산책을 마치고 아침을 먹은 후 해발 1500미터인 달스니바 산맥을 지났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산이 고요한 아침 호수에 그대로 비친다. 자연이 만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데칼코마니 호수이다. 어렵게 지그재그로 올랐던 달스니바 전망대에서 우리는 만년설을 직접 만져보고 돌탐도 쌓고 소리도 지르며 어린아이들처럼 자연과 시간, '지금' 을 즐겼다. 그 후 게이랑에르 선착장에서 페리를 타고 피요르를 1시간을 즐긴 후 예쁜 호르넨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뫼이야 빙하를 보러 갔다. 뫼이야 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요스테달 빙원의 한 자락이며, 푸른빛을 띠는 빙하이다. 빙하 아래에 있는 빙하 박물관에서 빙하 속 체험을 하고 빙하 조각 등을 만져보기도 하였다. 숙박을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두 번이나 건너 래르달에 도착하였다. 산으로 사면이 둘러싸인 조용한 산골 마을인데 집들이 너무 예뻐 밤늦도록 백야 속에서 마을을 산책하였다.

넷째 날은 플롬역에서 로맨틱 산악열차를 타고 뫼르달까지 갔다. 이 산악열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와있는 듯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기차가 한참을 산으로 올라가다가 효스포포 앞에 멈추니 음악과 함께 붉은 드레스를 입은 홀드라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 음악과 춤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인다. 뫼르달에서 보스까지 다시 현대식 기차를 타고 간 후에 버스로 노르웨이의 제2의 도시 베르겐에 도착했다. 베르겐은 여행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다시 그리워하는 낭만의 도시라고도 한다. 연중 270일 이상 비가 온다는 베르겐인데 오늘은 쨍한 해가 환상처럼 비춘다. 베르겐에서 먼저 그리그박물관을 보러 갔다. 그리그가 쓰던 가구며 일상생활용품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직접 사용한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다. 바닷가로 내려가기 직전의 햇빛 잘 드는 바위를 파서 그리그 부부의 유골함을 안치한 인상 깊은 묘지도 있었다. 박물관 밖 정원에 나오니 바다를 조망하는 멋진 경치가 펼쳐진 바닷가가 있고, 우린 바닷가 파도가 치는 바위에 앉아 그리그의 멋진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했다. 그다음으로 베르겐의 명물인 해발 320m인 플웨엔 산에 올라 베르겐 전 시가지를 조망한 후 활기찬 어시장과 옛 부둣가의 건물촌인 브뤼겐(Bryggen)의 목조가옥과 중세의 좁은 골목을 거닐고, 어시장에서 유명한 어묵에 맥주를 마시며 낮선 도시의 하루를 보냈다.



다섯째 날은 남쪽으로 계속 5시간 이상 이동하는 날이다. 각자 한국서 준비해 온 애청곡들을 서로 들려주고 같이 부르며 버스 이동의 지루함을 덜고자 하였다. ‘친구여’ 노래 악보를 복사해 온 우리 여행지기의 꼼꼼함에 감사하기도 하였다. 점심은 해우게순(Haugesund)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가졌다. 뜨거운 노르웨이 연어와 버섯과 피망을 볶은 것이 무척 맛있었다. 물론 어디서나 나오는 노르웨이의 감자도 좋았지만 디저트로 나온 초코렛이 올라간 무스(Moose)는 특별했는데 드로닝 그 마우드(Dronning Maud: 마우드 왕비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드로닝 그 왕비 무스는 이 지역 유명 음식으로 염소 치즈를 넣어서 더 맛있다고 한다. 점심을 먹고 다시 버스는 계속 달려서 스타방에르에 도착하였다. 노르웨이 남부에 있는 스타방에르는 덴마크와 가까운 지역이다. 오일정제 사업으로 발달한 부유한 도시로 빨간 지붕들이 도시를 더 활기차 보이게 한다. 바닷가 주변에는 수많은 요트가 정박하고 있고, 커다란 크루즈들도 들어와 있다. 광장에서는 라이브 밴드가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고 가수는 열창한다. 길가 야외식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맥주와 음식을 즐기며 햇살을 맘껏 받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다. 스타방에르에서 18세기 목조건물들이 남아 있는 구(舊)시가지와 보고 라이브음악을 즐기다가 호텔로 돌아왔다.

드디어 **여섯째 날**이다. 오늘은 결전의 날이다. 프레이케스톨렌(설교제단이라는 뜻) 트래킹을 하는 날이다. 친구들은 트래킹화를 착용하고 스틱과 장갑과 두툼한 옷으로 중무장했다. 프레이케스톨렌은 604m 높이의 수직으로 깎아 자른 모양의 화강암 바위다. 거기서 보는 뤼세 피요르는 절경 중의 절경이라고 한다. 우리는 점심용 샌드위치를 분배받은 뒤 버스에서 내려 트래킹을 시작했다. 산행하는 동안 선두, 중간, 후미 그룹으로 자연스레 나뉘었다. 604m면 그리 높은 산이 아니지만, 올라가는 길이 완전 돌길이기 때문에 발바닥에 오는 충격이 더 크게 느껴져서 힘들다. 올라갈수록 바위들의 위용이 대단하다. 2시간 이상을 걸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서 정상에 도달하니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일구어낸 장엄한 모습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우리는 다 등반에 성공했다. 후발주자 친구들은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등산은 없다면 서 땀을 닦는다. 사실 트래킹은 오르기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지만, 총 6시간 트래킹하는 동안 친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조심조심 내려왔다. 저녁은 산(Sand) 지역의 바닷가 마을의 뤼필케 피요르호텔에서 머물렀다. 이 호텔은 여행 중 가장 전망이 좋았던 곳인데 요트 선착장이 코앞에 있는 아름다운 피요르 마을의 구석에 있다. 크래킹으로 피곤한 몸인데도 강철 체력 77아동 여인들은 이불을 둘러쓰고 바닷가 앞에서 저녁 맥주 파티를 하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일곱째 날, 아침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허세 브루와(다리)를 잠시 보았다. 디토의 작품인데 노르웨이에서 상까지 받은 유명 설치물이라고 한다. 강물 위를 지나가는 철제 통로다리가 작품인데, 다리 밑으로 보이는 물은 맑기 그지없고, 주변 경치 또한 아름답다. 가는 길 내내 아름다운 강과 호수가 펼쳐져 있고 보라색 분홍색 야생화(Heather라는 이름의 꽃)이 무리지어 피어 있다. 가는 도중에 커피타임으로 노르웨이 숲속 전통 호텔인 하우켈리(Haukeliseter fjellstue)에서 커피와 빵,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주변 경치를 즐겼다. 만년설이 보이고 호수가 바로 옆에 자리한 카페인데 한 친구는 노르웨이 청년들과 밖에서 외출타기 놀이를 하며 즐거워했다. 한참을 달려 셀요드에 있는 161년 된 멋진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노르웨이에서 현존하는 28개 목조교회 중 하나인 노토텐에 있는 해달교회에 갔다. 외형상으로는 3층 지붕과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뾰족한 지붕 끝에는 용머리와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다. 용머리는 악마로부터 교회를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 긴 세월을 지켜온 목조교회에서 친구들은 잠시 기도로 여행 시간을 멈춘다. 그리고 버스를 달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도착하였다. 여행 중 처음으로 한식당을 갔고 꿀맛 같은 신선한 연어회를 먹었다.

여덟째 날은 오슬로 시내에 있는 비겔란 조각공원, 국립미술관, Akershus성과 요새, 칼 요한 거리 등을 관광하고 핀란드 헬싱키로 떠나는 날이다. 비겔란 조각공원은 화강암과 청동을 사용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 회로애락, 가족 간 사랑 등 인간 본연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한 작가가 표현한 작품들로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오슬로 국립미술관에는 몽크의 '절규'가 전시되어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찾는다. 아쉬움을 담은 채 미술관을 나와 점심을 먹고 친구들 각자 원하는 대로 자유 시간을 갖는다. Akershus성을 구경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오랜만에 여기저기 흩어져 시간을 보낸다. 그 후 오슬로 공항으로 가서 핀란드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아홉째 날 오전에 헬싱키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일요일 벼룩시장에 갔다. 여유롭게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 속에 묻혀서 즐거운 벼룩시장을 구경하며 핀란드인들의 문화와 생활에 잠시 들어가 본다. 옷, 천, 식탁보, 팔찌, 목걸이, 귀걸이, 가방, 구두, 장난감, 그릇, 골동품 등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있다. 다음으로는 마켓광장으로 나와서 신선한 과일과 야채, 청어튀김을 먹은 후 시벨리우스를 비롯하여 유명 예술인들이 머물렀다는 카펠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오전을 보냈다. 이후 암석 교회를 구경하였는데, 3100개의 강철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자연친화적 건축의 본보기로 많은 전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답다. 여기를 끝으로 헬싱키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친구 중 반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반은 남아서 에스토니아 탈린을 이틀간 더 돌았고 한 친구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여행하기도 하였다.

花香百里 酒香千里 人香萬里라는 말이 있다며 진형이란 친구는 이번 여행에서 친구들의 인간적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비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수용적이고 차이를 존중하고 유머러스하고 웃음이 많고 너그럽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잘 베풀면서 끝낸 아동학과 77학번의 여행이었다. “우린 목적지에 닿을 때보다 지나치는 길목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곤 한다. 어쩌면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인지 모른다”(언어의 온도, 251쪽). 남은 우리의 인생 시간도, 우리의 관계도 밀도 있는 여행처럼 늘 소중하고 행복한 과정이길 바란다. ㉟

여행자

김명순, 김 복, 김신옥, 김온기, 김현혜, 서명수, 신숙희
양희선(회장), 오세정(여행지기), 왕영희, 윤연숙, 이경애
이인성, 이혜란, 제경숙, 조진형

VILLAGE

GASTRO PUB + BREWERY



VILLAGE GASTRO PUB + BREWERY는 전북 고창의 풍부한 로컬 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제 맥주와 한국의 식재료로 만든 이탈리아, 벨지안, 스페니쉬 등 유러피안 요리를 선보이는 공간입니다. 중세의 직업을 모티프로 한 VILLAGE의 맥주처럼 이 곳에서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서로 나뉘지며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성벽 안에서 섬세하게 건축된 정원, 성, 지하의 홀은 뉴 미디어리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풍미가 넘치는 맥주, 수준 높은 다이닝 문화, 나아가 소셜 라이프를 담아낼 VILLAGE GASTRO PUB + BREWERY는 로컬의 가치와 서울,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할 뉴 플랫폼입니다. (식생활 86, 차명화)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로 11길 34 (T. 02-332-1134)

상명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2019학년도
제 1 학 기
학 위 과 정
신 · 편 입 생
모 집 안 내**

지원자격

구분	자격 대상자
신입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편입생	- 학위과정(전문학사 또는 학사)을 1년 이상 수료한 자

모집과정

학위	전공	세부전공
무용학사	무용학	스트릿댄스, 케이팝댄스, 발리댄스,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음악학사	음악학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음악학사	실용음악학	보컬, 기악, 작·편곡/싱어송라이터, 미디어작곡/전자음악

접수방법 및 문의

원 서 접 수 www.uwayapply.com (검색창에 상명대학교평생교육원 입력)
문 의 처 평생교육원교학팀
전 화 02-2287-5160, 5289
주 소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월해관 M410-1호 (우03016)
홈 페이지 musiccon.smu.ac.kr

WINNERS DANCE SCHOOL®

KOREA NO.1 STREET DANCE SCHOOL



winnersdanceschool.com



instagram @winnersdanceschool



facebook.com/winnersdanceschool



youtube.com/c/winnersdanceschoolofficial



hongdae 02.324.5532 gangnam 02.572.0510 mia 02.980.4777

Olive Beauty
LA CHINATA
라치나타



1932년부터 시작된 올리브의 마에스트로

www.lachinata.co.kr

라치나타의 역사는 1932년 스페인에서 올리브를 연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브유에 대한 열정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엑스트라버진올리브오일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엑스트라버진올리브오일, 건강한 자연식재료의 마식라인,
올리브의 놀라운 보습력과 항산화력의 라치나타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바르며, 즐기세요!



범물연세 치과의원

원장 이동훈(치의학78)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은
건강한 치아관리의
기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269
범물 보성아파트 상가 202호
TEL: 053) 783-7574



beautifuljaw.co.kr

턱이아름다운치과

원장 장현호(치의학81)



구강악안면외과 전문 병원으로
주걱턱, 안면비대칭, 무턱 등에 대한
양악수술(턱교정수술) 및 턱관절 질환,
임플란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65-2
진넥스레이크뷰9층
TEL: 02) 420-5550

Lighn

Design Studio [l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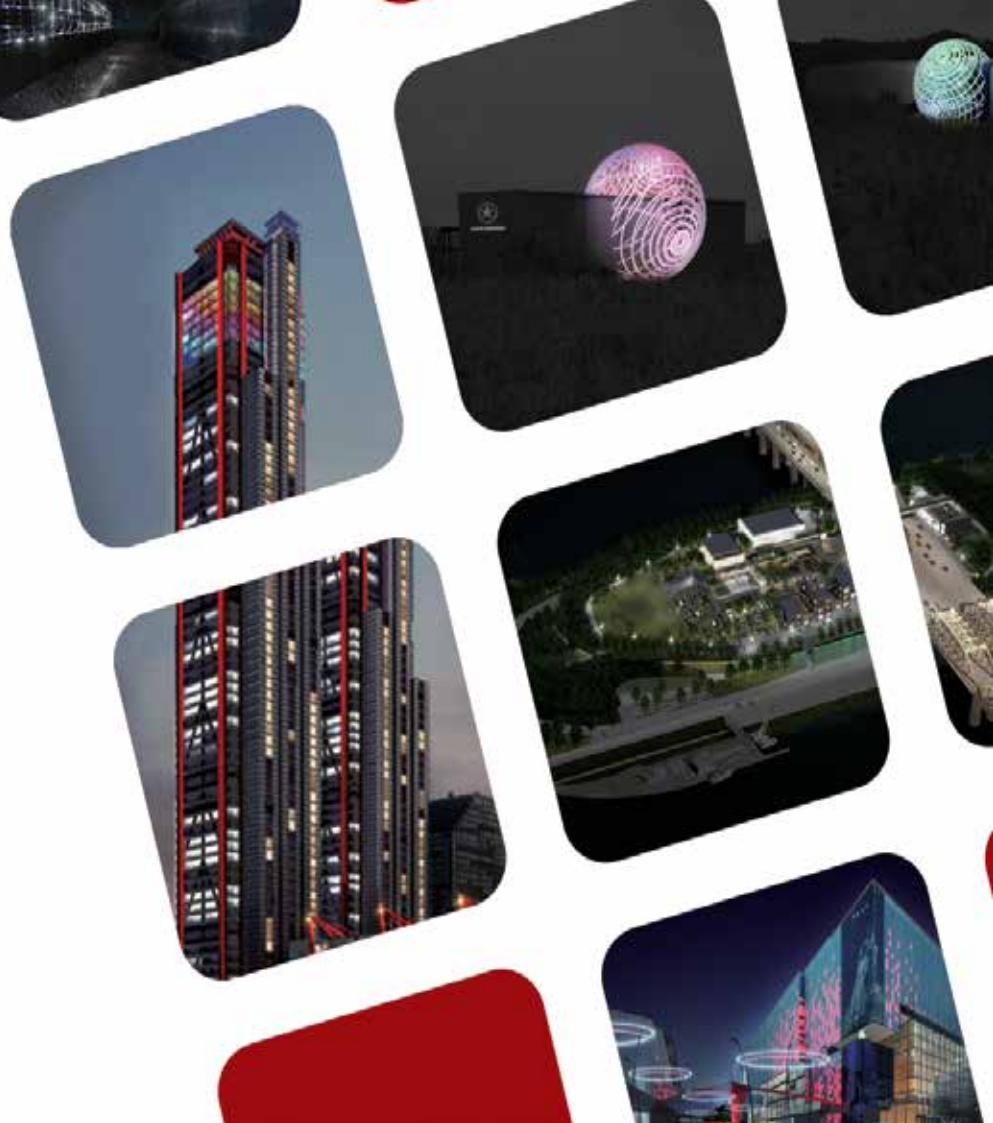
도시야간경관

공원 조명설계

건물 조명설계

인테리어 조명설계

조명 예술 장식품



Labelle Antique

백년 이상 가치를 이어온 시대의 품격

France, United Kingdom Original Antique

가구, 상들리에, 페브릭, 그릇 등 소품류

<https://blog.naver.com/okpush>

방문전 문의: 010-4529-395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25 (1층)

지하철: 애오개역 2번출구에서 보도로 1분 거리

버스: 일반 1002 지선 7013A~B, 7611

간선 160, 260, 600 공항 6015, 6021

자가용: 건물 양측 유료주차장 이용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아름답다
모노물병이 그렇다

[instagram.com/jvr2992](https://www.instagram.com/jvr2992)

smartstore.naver.com/jvr



전속모델 현빈

메디힐 NMF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

**메디힐
앰플 마스크 EX.**

한장의 차이가 피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Upgrade EX. X3 초밀착 흡수력강화 파라벤무첨가

MEDIHEAL

**메디힐 엔엠에프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 이엑스**

N.M.F AQUARING AMPOULE MASK EX.

수분강화 모공수렴 주름개선 기능성

▶ 앰플 한병의 영양을 피부에 듬뿍!!

자연유래보습인자(NMF)와 수분공급 효과가 우수한 소분하이알루로네이트, 워터젤렌수가 예민한 피부의 걸증을 풀어주고, 식물성 성분인 알란토인, 트레할로스가 피부에 수렴효과를 주어 피부탄력을 증진시켜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동학과 2회 우연숙 / 식생활과 14회 우연숙



우테하 · 한승경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 점, 잡티, 기미, 주근깨 레이저 클리닉
- 볼륨업 보톡스 필러 클리닉
- 노화방지 클리닉
- 여드름 클리닉
- 여드름 흉터 클리닉
- 메디컬 스킨케어(에스테틱)



WHITE MUSK®

STEVE J & YONI P LIMITED EDITION



THE BODY SHOP®

WHITE MUSK® X STEVE J & YONI P LIMITED EDITION